

머리말

나라에는 國史가 있고 宗族에는 系代를 면면히 이어온 血統의 精華와 祖宗의 事蹟을 收錄한 族譜가 있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가지없는 잎이 없다 한 나무가 천가지 만잎으로 茂盛하게 자라나려면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培養되어야 함은 大自然의 法則이거늘 하물며 사람이 根本을 尊重하고 닦는것은 지극히 當然한 일 일것이다

옛聖賢 孟子님 말씀에 이世上 萬物中에 사람이 가장 貴하니 그 이유는 五倫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 五倫은 時代의 古今이나 洋의 東西에 따라 適用의 차이는 있어도 人門의 基本倫理임을 否認하는 社會는 없었다 人間이 태어나서 계승발전 해가는 人類繁榮의 根源인 父子와 夫婦관계를 始祖로부터 繼承分派된 根幹과 子孫들의 번창한 소목을 그리고 先祖들의 훌륭한 事蹟을 記錄제본한 冊이 族譜이고 보면 이 族譜에는 祖上들의 숨결과 「얼」이 담겨있고 傳統文化를 계승발전하는데에도 없어서

는 안될 값진 寶書인 것이다

우리 慶州崔氏의 文昌侯諱致遠始祖는 일찍이 唐나라에 유학하시어 文章으로 詩로 中原天地를 뒤흔들었음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학문의 聖祖로 온국민들의 추존을 받고있으며 文貞公諱承老 恭順公諱齊顏을 이어서 代代로 훌륭한 先祖들의 피를 받은 공지를 가지고 宗族間에 화목을 보다 두터히 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世界人類에도 貢獻할수있는 有力하고 眞實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 더 훌륭한 後孫을 키우는데 힘써서 偉大한 祖上들의 聖業을 더욱 빛나게 하는것이 우리의 도리요 책무이며 곧 애국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싶읍니다

이번에 始祖의 十二世孫 判書公諱賢進派의 派譜를 刊行함은 宗親會 決議에 따라 始作하였으나 實務에 臨하여 收單과 編輯 發行 課程에서 許多한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門中여러분의 協助에 힘입고 特히 實務를 맡아주신 秉南 度熙 重昌의 정성어린 功으로 大過없이 完成한데 對하여 深深한 謝意를 드리는 바이다

西紀一九八二年壬戌五月

後孫 東熙 謹識

慶州崔氏判書公諱賢進六世孫嘉善公諱仁漢派譜

中始祖

崔致遠

字孤雲號海雲一曰
字海夫號孤雲沙梁
部人新羅

憲安王丁丑生精敏好

學年十二隋海舶入

唐尋師力學 僖宗

乾符元年甲午登第

時年十八調漂水縣

尉遷侍御史內供奉

賜紫金魚袋年二十

八 奉帝詔還本國

憲康王留為侍讀兼翰

林學士兵部侍郎知

瑞書監事先生欲展

所蘊而袁季多疑忌

出為泰山富城郡太

守 眞聖王甲寅進

時務十餘條主嘉納

之拜阿殮○先生自

西遊東還皆值世亂

無復仕進意自山水

遍觀東國名勝晚隱

伽椰山以終 高麗

顯宗庚申追贈內史

今從享文廟至癸亥

贈諡文昌侯詳見東史

二世

子殷舍

新羅元甫久而無子
禱而生子承老

三世

子承老

門下侍中平章事
清河侯食邑七百戶
公聰敏好學善屬文

年十二

麗太祖召見使讀論語

嘉之 賜塩盆拜隸

院鳳省學士 賜鞍

馬例食二千石

自是委以文柄歷事

太惠定光景成六朝

論奏時政得失二十

八條以斥佛崇儒為

第一義

成宗八年己丑五月卒

壽六十三

贈太師大匡內史令

諡文貞

贈賻布一千疋

麵三百石

粳米五百石

乳香一百兩

腦原茶一百斤

角大茶一百斤

穆宗元年配享 成宗

廟 德宗二年

四世

子肅

門下侍中平章事
諡仁孝

顯宗丁卯配享穆宗廟

德宗癸酉 贈太師

宣宗丙寅避 文宗王

諡改諡 忠懿

五世

子齊顏

高麗大匡太師門下
侍中諡恭順歷事

顯德靖文四廟

顯宗丙寅為太子右庶

子庚午為中樞使

德宗甲戌為戶部尚書

是年

靖宗即位為吏部尚書

丙子為尚書左僕射

丁丑為叅知政事

癸未為門下侍郎同

內史門下平章事判

尚書戶部事

丙戌八月庚申

文宗即位召公及崔冲

論時政得失十一月

戊子公疾篤 文宗

親臨問病公俱冠服

拜謝翌日卒

文宗慟惜殊甚撥朝

三日

宣宗丙寅 贈太史中

書令丁卯配享文宗

廟 許見東史

六世

子繼勳

二下